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 허각

1 가사보기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무슨 일 없는지
Jal jinaego inneun geonji museun il eomneunji

지겹던 너의 잔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Jigyeopdeon neoui jansoriga neomu geuriwoseo

그렇게 나 하나밖에 모르던 너인데
Geureoke na hanabakke moreudeon neinde

나 없이도 괜찮은지
Na eopsido gwaenchaneunji

하루에 수백 번씩 나 후회를 하고
Harue subaeng beonssing na huhoereul hago

네가 없다는 걸 느끼며 나 매일을 살아
Nega eopdaneun geol neukkimyero na maeireul sara

널 위해 내가 떠나야 하는 게 맞지만
Neol wihae naega tteonaya haneun ge matjiman

난 널 잊고 살 순 없는가봐
Nan neol itgo sal sun eomneungabwa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젠 곁에 없지만
Nareul saranghaetdeon sarama ijen gyeote eopjiman

아직 잊지 못하고 너를 잊지 못하고
Ajing itji motago neoreul itji motago

그저 한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Geujeo hanbeonirado dasi bol su itdameyon

볼 수만 있다면 다시 널 볼 수 있다면
Bol suman itdameyon dasi neol bol su itdameyon

너무나도 아프고 잊을 수가 없어
Neomunado apeugo ijeul suga eopseo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너의 그 투정이
Haruedo myeon beonssing hadeon neoui geu tujeongi

1 가사보기

웃으며 내 품에 안겨서 날 보던 모습이
Useumyeo nae pume angyeoseo nal bodeon moseubi

헤어지던 날 너의 두 눈이
Heeojideon nal neoui du nuni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젠 곁에 없지만
Nareul saranghaetdeon sarama ijen gyeote eopjiman

아직 잊지 못하고 너를 잊지 못하고
Ajing itji motago neoreul itji motago

그저 한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Geujeo hanbeonirado dasi bol su itdameon

널 볼 수 있다면
neol bol su itdameon

니가 있어서 나는 항상 웃을 수 있었고
Niga iseoseo naneun hangsang useul su iseotgo

니가 있기에 내가 가장 행복 했었고
Niga itgie naega gajang haengbong haeseotgo

너로 인해 내 삶도 살아볼만 했었어
Neoro inhae nae samdo sarabolman haeseoseo

내가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아
Naega neomudo saranghaetdeon sarama

2 문법학습

-(으)며

어떤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

매일 살고 있지만 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네가 없다는 걸 느끼며 나 매일을 살아'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예문을 살펴볼까요?

- 1) 가: 마이클 씨가 뭐 해요?
나: 신문을 **보며** 밥을 먹어요.
- 2) 가: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나: K-POP을 **들으며** 단어를 공부해 보세요.

2 문법학습

Noun-을/를 위해

‘대상을 이롭게 하거나 도우려는 목적으로’라는 의미

원래는 ‘너를 위해’라고 해야 하지만 구어체에서 줄임말로 ‘너를’ 대신 ‘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왔던/있던/였던

과거 상황을 회상하거나 그 상황이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라고 부르는 거지요.

-다면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문을 한 번 살펴볼까요?

- 1) 가: 제임스 씨, 에이미 씨에게 데이트 신청할 거예요?
나: 네. 에이미 씨가 데이트 신청을 받아 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 2) 가: 이번 방학에 한국에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여기저기 많이 구경하고 싶어요.
나: 한국에 볼 것도 먹을 것도 많으니까 꼭 가 보세요.

3 단어학습

하루에 수백 번씩 나 후회를 하고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 잘해 줄 걸, 그때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후회’입니다.

일의 횟수를 셀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수백 번’ 후회를 합니다. ‘수백’은 백의 서너 배이니까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수백 번씩’이라고 말하는 것은 후회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되풀이해서 수백 번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량이나 크기가 되풀이될 때 ‘-씩’을 함께 사용합니다.

3 단어학습

널 위해 내가 떠나야 하는 게 맞지만

‘떠나다’는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계를 끊거나 관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맞다’는 앞의 말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위해 ‘떠나야 하는 게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난 널 잊고 살 순 없는가 봐

‘-는가 보다’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루어 추측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잊다’는 어려움이나 고통, 또는 좋지 않은 지난 일을 마음속에 두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널 잊고 살 순 없는가 봐’는 원래 ‘나는 너를 잊고 살 수는 없는가 봐’로 말해야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너를’과 같은 표현을 줄여서 사용할 경우 ‘난, 널’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젠 곁에 없지만 아직 잊지 못하고

‘이제’는 바로 이때를 의미하는데 지나간 시간과는 단절된 느낌을 줍니다.

‘곁’은 어떤 대상의 옆, 심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의미합니다. 늘 항상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전과 달리 ‘이제는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지만 이 남자 주인공은 ‘아직 잊지 못합니다’.

‘아직’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